

01 교회소식

신앙서적으로 영적 성장을

급속한 영의 흐름을 타고 신속히 변화되는 길을 제시하는 이재록 목사 신앙서적과 화제의 신간

02 생명의 말씀

마지막 때의 섭리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오종 복음과 권능, 그리고 영적 장수를 준비시키셨다.

03 특집

세상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와 함께 전 세계 곳곳에서 성경의 오종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04 간증

주님 인도하심 속에 사법시험 패스

시험 준비에서 합격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은혜였다는 사법 시험 합격자 이한빛 자매의 간증.

만민뉴스

제563호 2013년 1월 6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생명의 양식과 함께 축복의 새해를 맞이하세요”

이재록 목사 신앙서적 축복의 비결 듬뿍 담겨

기대와 설렘 속에 새해가 밝았다. 예측불허의 삶 속에서도 평안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뜻을 찾는 일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다국어 신앙서적을 영적인 멘토로 초빙해 영적 성장과 함께 항상 승리하는 축복의 새해가 되길 기원한다.

이재록 목사의 설교는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행함 있는 참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순수하게 성경에 입각해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는 영적으로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유무나 나이 혹은 초신자나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을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시키며 하나님 사랑을 가슴 깊이 심어주고 있다.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토대로 최근까지 발간된 모든 저서가 성경의 감동함 속에서 은혜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읽는 이들에게 참 생명을 심어 주는 동시에 영적 성장을 도와주고 있다. 아울러 갖가지 인생 문제 해결, 회개와 통회자복의 역사는 물론 치료의 역사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책자를 통한 문서선교



는 이재록 목사의 선교사역 중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재록 목사는 1987년 4월 17일 발간된 그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시작으로 38개 언어로 출간된 베스트셀러 『십자가의 도』를 비롯, 『천국』, 『지옥』, 『믿음의 분량』, 『영혼육』, 『깨어라 이스라엘』 등 80여 권에 달하는 한국어 책자를 발간했다.

또한 해외 성도들의 요청으로 영어, 중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어 등 44개 언어 201종의 다국어 저서와 36개 언어 218종의 전자책(e-book)이 발간됐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이태리, 대만,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외 20여 개 출판사와 세계 최대 인터넷서점 아마존닷컴, 애플 iBookstore를 통해 전 세계 각

곳에서 출판, 유통되고 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자책(e-book) 보급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대망의 2013년 새해를 맞아 영

적 성장과 축복의 비결이 듬뿍 담긴 이재록 목사 저서를 양심삼심으로 급속한 영의 흐름 가운데 가나안 성전 시대에 준비된 그릇으로 나오길 기대한다.

포토뉴스



당회장 이재록 목사

2013년 시무식이 지난 1월 2일, 본당에서 있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 교역자, 교회 직원 등 900여 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다.



| 화제의 신간 |

■ 신앙의 첫발을 밟는 이의 소중한 선물 '신앙인의 기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갓 태어난 한 사람이 어떠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까지 가장 기초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다.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 '구원받을 믿음과 구원받은 믿음', '기도하는 요령', '축복의 비결', '이단의 정의' 등 신앙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준다. 믿음의 첫발을 내딛는 새신자는 물론 영혼을 갈무리하는 일꾼의 필독서이다.

■ 주니어 Bible study 1 그림과 함께 보는 '위대한 성경 인물들의 선'

믿음의 선지자들의 선(善)을 삽화와 함께 볼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로우며, 어린이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알고 닮아가는데 중요한 지침서이다.

■ 청소년 Bible study 2 사도 요한이 들려주는 '주님의 자취(1)'

이재록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 '주님의 자취'를 토대로 태초의 비밀, 예수님의 근본, 인간구원의 섭리를 깨우칠 수 있도록 12주의 큐티(QT)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절별 해설과 풍성한 성지순례 화보가 수록됐다.

우림북_ 02)837-7632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 앤 루니스, 북스 리브로 등 국내 대형 서점과 수도권 및 전국 지교회 인근 서점에서 구입 가능.

마지막 때의 섭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4)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 전 세계 70억이 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며 참된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섭리'란 어찌하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새해를 맞아 전 성도가 다시 한 번 마음을 결단해 마지막 때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만민'이라는 이름에 담긴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 '만민(萬民)' 즉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이 제단의 이름 안에 담아놓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37세라는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했기에 1학년 때부터 교회 개척을 준비하며 교회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약 3년 후, 하나님께서는 교회 개척을 앞두고 '만민교회'로 칭할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마지막 때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이 제단을 세우시고 '만민교회'

라는 이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에는 만민교회로 시작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지교회라 생겨나 '만민중앙교회'로 개칭했지요. 그 결과, 지금은 전 세계 1만여 개의 지교회 및 협력교회와 함께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개척 때부터 우리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크신 섭리를 이루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의 섭리를 본격적으로 펼칠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전 준비 작업을 했다면 이제는 대대적인 영적 전쟁을 시작한다는 의미이지요.

유능한 장수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 철저히 준비합니다. 먼저는 좋은 무기를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군사들이 잘 훈련돼 무기를 잘 다루고, 전술을 이해하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휘체계 안에서 상관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자세가 필요하며 군기가 잘 잡혀있어야 하지요. 여기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

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면 그만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엡 6:12-13).

2. 마지막 때의 섭리를 위한 준비

첫째로,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들을 최고 수준으로 갖추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의 꾀계를 찢러 쪼갤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지요(엡 6:17).

영적 장수로서 영적 전쟁에 나아갈 일꾼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무장돼 있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잘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 싸울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고수 검객(劍客)은 검과 자신이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장수도 말씀의 검과 자신이 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 말씀'은 영혼들에게 먹일 영

적인 생명의 양식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것을 말씀했지요(암 8:11). 이에 저는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성결의 오종복음'을 이 제단에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케 하며 영혼이 잘되게 하는 말씀을 풍성하게 내려 주셨지요.

이뿐 아니라 권능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권능을 제게 주심으로 무수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이 제단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믿음을 키울 수 있게 하는 불같은 기도와 은혜로운 찬양도 있습니다. 여기에 12번의 해외 연합대성회와 이스라엘 선교를 통해 1차적으로 세계 선교 활로를 뚫어 놓았지요. 아울러 방송과 문서선교를 통해 세계교구화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들을 최고 수준으로 갖추실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를 전쟁 준비에 비유하자면 최고 성능의 각종 무기를 마련한 것과 같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전 세계에 대대히 선포한 이재록 목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참임을 증거하는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전 세계 곳곳에서 해외 연합대성회를 인도해 성경이 참임을 입증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 되심을 선포했다. 그의 기도로 소경이 눈을 뜨고 병어리가 말을 하며, 귀머거리가 듣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암, 에이즈 등 갖가지 질병이 치료됐다. 뿐만 아니라 태풍이 소멸되고 심각한 가뭄 끝에 비가 내리는 등 놀라운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가 무수히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말·공휴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 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 일주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휴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둘째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마지막 때의 섭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 중요성을 아셨기에 2010년부터 급속한 영의 흐름을 허락하셨지요. 그동안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은 영적인 급물살을 타고 신속한 믿음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반면에, 많은 죄를 짓고 불법을 행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자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며 제 생명을 담보로 중보기도를 올렸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 가운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영에 대한 사모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말씀 무장에 힘쓰며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마음을 갖게 됐지요.

2012년 영의 흐름은 2011년과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가파르게 성장했다면 2012년에는 완만하게 성장했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2012년에는 믿음을 다지는 기간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디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목자의 말을 믿는지 의심하는지를 보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한번 받은 약속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도 의심치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믿

음을 갖기 원하셨지요.

이와 함께 성도들이 목자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정녕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목자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목자의 집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2012년만큼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성도님이 힘에 지나도록 마음과 정성을 모아 목자의 힘이 되어 주셨지요. 2012년에는 바로 이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의 신뢰와 사랑을 측정하셨고 그에 따라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2012년 말까지 영과 온 영의 사람이 많이 배출됐고 수많은 성도가 믿음의 반석을 지나 영으로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특히 믿음의 일꾼들은 영의 흐름 가운데 능력을 받았지요. 서로 마음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서 난관을 잘 통과함으로써 장차 가나안 성전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3.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영계의 법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지막 때의 섭리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영적인 빛이 밝을수록 어둠의 세력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해 영적으로 심히 어두운 때에 이 제단이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영의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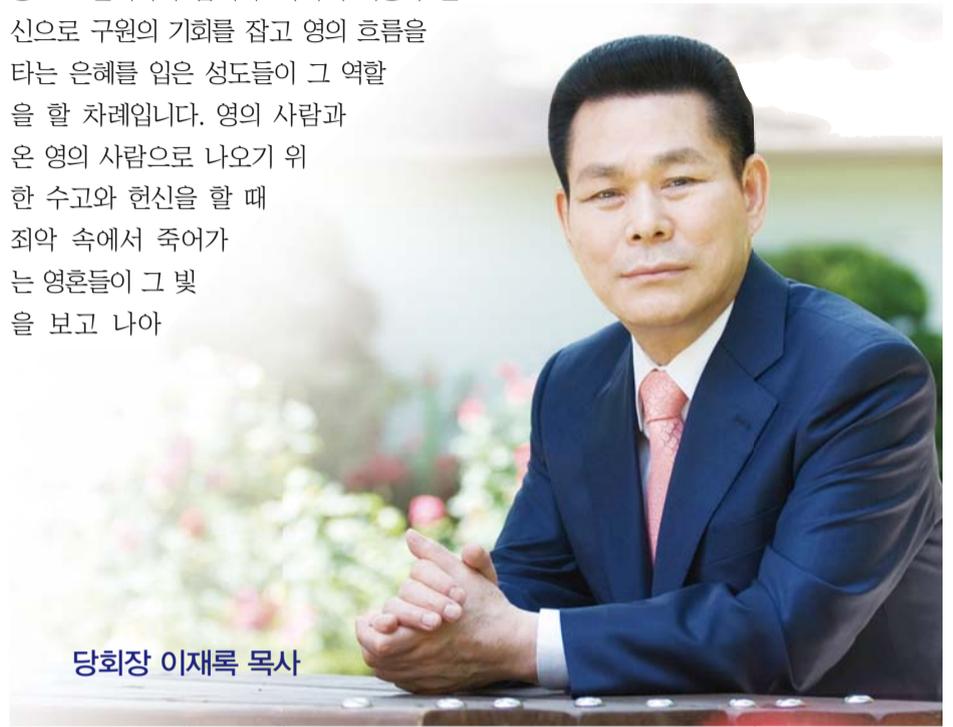
마지막 때가 되면 목자를 중심으로 영의 사람들이 온전히 빛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죄 중에 사는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지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되는 만큼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계의 계산법입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개인의 영광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공의를 채우기 위해 영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목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구원의 기회를 잡고 영의 흐름을 타는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할 차례입니다. 영의 사람과 온 영의 사람으로 나오기 위한 수고와 헌신을 할 때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나아

올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아 날로 믿음이 성장함으로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때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고 훗날 영광의 대열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2013 謹賀新年 1 January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3.1.6~1.12)

-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십자가의 도 2-6
 - 빛을 발하는 성전
 - 생명의 씨 1-4
 - 육체의 결여 5-9
 - 일곱교회 16-20
 - 창세기 강해 89
- GCN TV설교**
 - 내가 시행하리니 5-7 (이수진 목사)
 - 성령받은 증거 1 (산동초 목사)
 - 지혜 | 김수정 목사
 - 'GCN TV특강'
 - 십자가의 도 13-14 (영구영 목사)
 - 일곱교회 1-3 (번금선 권사)
- 찬양 프로그램**
 - GCN 파워프레이즈[2] 14-18
 - 찬양과 경배 [3]
 - **해외성회 시리즈**
 - 인도연합대성회 2
 - 뉴욕연합대성회 (총합권)
- 간중 프로그램**
 - 크리스천 투데이 12-20
 - 우리는 GCN 6-10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A/S 문의 1577-2073

1.8Kg 팔삭둥이, 하나님 은혜로 사법시험 합격하다

이한빛 자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4년, 3청년선교회)



사법연수

Judicial Research & Training I

1989년 6월, 저는 1.8kg의 팔삭둥이로 태어나 한동안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몇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엄마 김광분 권사님이 형식적 신앙생활을 눈물로 회개하신 후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해 엄마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고,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 설교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하며 성장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법시험 1차 합격

2008년 2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아빠 이일호 성도님의 권유로 2009년 12월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휴학계를 냈습니다. 그 당시 법조계 인재양성 전문 대학원인 로스쿨이 설립되면서 사법시험 선발 인원이 점차 축소된다는 소식이 진로가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 사법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막상 도전하고 보니 환경과 조건들이 녹록지만은 않았습다. 저는 가정 형편상 유명 강사 강의나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중고서점에서 지난 강의 테이프를 구입해 공부해야 했기에 다른 시험 준비생들보다 학습 진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조금도 불평하거나 서운해 하지 않았습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능히 이룰 수 있다는 확신 까닭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지요.

저는 헌법과 민법, 형법 기본강의, 판례

강의, 모의고사 및 기출 문제 강의 등 많은 하루 10개 이상 강의 테이프를 청취하며 밤낮없이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4월, 제53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습니다. 이제까지 늘 저를 바라보며 응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

저는 사법시험 1차 결과가 예상보다 좋아 자신감을 갖고 바로 6월에 있는 2차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짧았던 터라 불합격됐지요. 그 후 하나님께서는 제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2011년 11월, 이미 1차 합격한 저는 의향재(한국외대 사법시험 준비반) 실장님의 권유로 별다른 입소시험 없이 합류함으로써 많은 수험 정보와 공부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 통학 거리를 고려해 원룸을 제공해주었고, 강의 교재를 무료로 지원해 준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2차 시험에 대비할 수 있었지요.

2012년 6월, 한 달도 남지 않은 2차 시험 마무리 준비를 위해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습다. 그 뒤 신기하게도 학습 능력이 오르고 집중도 더욱 잘되는 체험을 했지요. 저는 하루 8~9시간을 공부하고,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10시간 이상 공부를 하면서 인내와 끈기를 배웠고, '하면 된다'는 확신에 섰습다. 당회장님의 저서 『공부 잘하는

비결』도 학습 능력 향상에 한몫을 했지요.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 성적우수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2차 사법시험이 치러졌습니다. 2차 시험은 주관사인데, 과목마다 시험지 분량을 채울 만큼 행통했지요. 그 뒤 하나님께서는 합격 사실을 두 차례 꿈을 통해 미리 알려 주셨습니다. 합격자 명단 플랜카드에 제 수험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는 꿈, 그리고 합격 통지 문자 3통을 받는 꿈이었지요.

드디어 10월 19일,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발표가 났습다. 결과는 합격이었지요. 순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라는 고백과 함께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 얼굴이 떠올랐습다. 11월 13일 3차 면접시험을 무사히 치른 뒤 21일, 제54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이 발표됐지요. '이한빛!'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사법시험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재작년 말과 작년 초, 교구장님과 대교구장님께서 심방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뒤 뻣뻣한 일과 속에서도 인터넷으로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했다니 자신감이 더해지면서 학습 성취도가 향상됐습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성구 한 절을 암송하고 성경 한 장씩을 읽었습니다. 더불어

잠언을 한 장씩 읽어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 힘썼지요. 매일 아침 당회장님의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받고 공부를 시작했고, 피곤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곡 '만민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피곤이 물러가고 정신도 맑아졌으며, 늘 강권했습니다.

주변 분들이 일요일에도 학교에 일찍 와서 공부하면 좋겠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시험 준비가 막바지라 해도 주일 성수뿐 아니라 저녁예배 후 당회장님께서 학생들을 위해 인도해 주신 '미니 은사집회'까지 참석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늘 저희에게 "죄악이 관영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돼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상품권을 나눠주셨지요. 학생들은 자상하신 당회장님 사랑에 감동을 받아 급격한 영적 변화가 일어났습다. 저 또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법시험에 꼭 합격해서 당회장님의 기쁨이 되리라.'는 마음으로 뜨거웠지요.

올해 3월, 사법연수원에 입소해 2년간 전문 법조인이 되기 위한 연수를 받습다. 시험공부를 하면서 당회장님께 범복을 입혀 드리는 것이 제 꿈이었고 그 모습을 상상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다.

우선 임관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해 교회와 목자의 힘이 되어 드리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량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2278-0641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민교회 경남 말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7487-171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